

미국의 창업 및 기업가정신 육성 실태 조사를 위한 전문가 면담 및 자료수집

-박종복 부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I. 개요

1. 출장자 : 박종복 (산업경쟁력실 부연구위원)
2. 출장지역 : 미국 (텍사스주 어스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캔자스주 로렌스,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캠브리지-웰슬리, 워싱턴 DC)
3. 출장기간 : 2008. 5. 28 ~ 2008. 6. 8
4. 출장목적 : 용역과제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을 위한 미국의 기업가정신 육성시책 사례조사 및 전문가 면담

II. 방문 일정 및 기관, 면담자

< 5월 28일 (수)>

○ 서울 출발 → 미국 텍사스주 어스틴 도착

○ 자료정리 및 회의 준비

< 5월 29일 (목)>

○ 방문기관 : IC² Institute (오전)

- 면담자 : David V. Gibson, Ph.D, Bruce Kellison, Jr., Ph.D

○ 방문기관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오후)

- 면담자 : John Sibley Butler, Ph.D.

< 5월 30일 (금)>

○ 방문기관 : Austin Technology Incubator (오전)

○ 면담자 : Debra Dzwonczyk

○ 방문기관 : IC² Institute (오후)

○ 면담자 : Prentiss Riddle, Eli D. Mercer

< 5월 31일 (토)>

○ 방문기관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도서관 방문

- 면담자 : 기업가정신 관련 자료수집, 회의록 정리

< 6월 1일 (일)>

○ 텍사스주 어스틴 출발 →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도착

< 6월 2일 (월)>

○ 방문기관 : University of Kansas - Lawrence (캔자스주)

- 면담자 : Sanjay Mishra, Ph.D

< 6월 3일 (화)>

- 방문기관 :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 면 담 자 : John C. Courtin
-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출발 →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도착

< 6월 4일 (수)>

- 방문기관 : MIT (Entrepreneurship Center) (오전)
 - 면 담 자 : Jose J. Pacheco
- 방문기관 : MIT 도서관 및 서점 (오후)
 - 면 담 자 : 기업가정신 관련 자료구입

< 6월 5일 (목)>

- 방문기관 : Babson College (Arthur M. Blank Center for Entrepreneurship)
 - 면 담 자 : Donna Kelley, Ph.D
-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출발 → 워싱턴 DC 도착

< 6월 6일 (금)>

- 방문기관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of Advocacy)
 - 면 담 자 : Chad Moutray, Ph.D, Charles C.F. OU, Ph.D, John J. Bienko

< 6월 7일 (토)>

- 미국 워싱턴 DC 출발 - 서울 도착 (6월 8일)

Ⅲ. 출장결과 주요 보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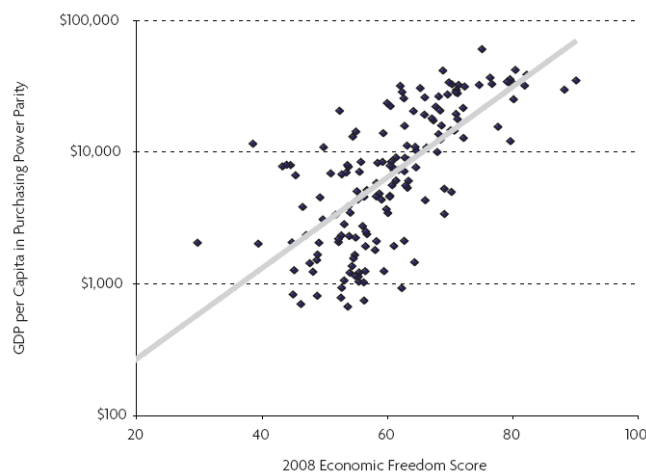
- 미국의 기업가정신 육성 실태 및 시사점 : < 별첨 자료 > 참조

<별첨> 미국의 창업 및 기업가정신 육성 실태

1. 창업 환경 및 실태

- 미국의 The Heritage Foundation과 The Wall Street Journal이 조사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IEF)는 1인당 GDP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제적 자유는 기업가정신이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초래하며, 경제성장은 다시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선순환을 초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그림 1 > 경제자유지수와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자료: 2008 Index of Economic Freedom, p. 6

주: 157개 국가단위 자료를 사용

- 미국의 IEF 평균 평점은 지난 14년간 견조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5위(100점 만점 기준 80.6)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2008년도 IEF 평균 평점은 67.9점으로 41위를 기록, 2007년 대비 5단계 하락함.

< 표 1 > 2008년도 경제자유지수 상위 20대 국가

순위	국가	평균 평점 (%)	증감 (% 포인트)	순위	국가	평균 평점 (%)	증감 (% 포인트)
1	홍콩	90.3	-0.3	11	덴마크	79.2	2.2
2	싱가포르	87.4	0.2	12	에스토니아	77.8	-0.2
3	아일랜드	82.4	-0.3	13	네덜란드	76.8	1.9
4	호주	82.0	1.0	14	아이슬란드	76.5	-0.2
5	미국	80.6	-0.3	15	룩셈부르크	75.2	-0.1
6	뉴질랜드	80.2	-0.8	16	핀란드	74.8	0.6
7	캐나다	80.2	2.1	17	일본	72.5	0.3
8	칠레	79.8	0.8	18	모리셔스	72.3	3.1
9	스위스	79.7	1.6	19	바레인	72.2	1.0
10	영국	79.5	-0.5	20	벨기에	71.5	-0.9

자료 : 2008 Index of Economic Freedom

주 : 증감은 전년 대비

- 이처럼 미국은 창업 및 기업경영 환경이 매우 자유로워 2002~2006년 기간동안 연평균 62만 3,000여개의 기업이 꾸준히 창업되고, 연평균 55만 5,000여개의 기업이 폐업된 것으로 나타남.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파산신청에 들어간 기업은 연평균 3만 6,700여개에 달했으나 2006년부터는 2만개 미만으로 줄어듦.

< 표 2 > 고용기업의 창업 및 폐업 현황(2002-2006)

Category	2002	2003	2004	2005	2006
New Firms	569,750	612,296	628,917	653,100e	649,700e
Closures	586,890	540,658	541,047	543,700e	564,900e
Bankruptcies	38,540	35,037	34,317	39,201	19,695

e=Advocacy estimate. For a discussion of methodology, see Brian Headd, 2005 (www.sba.gov/advo/research/rs258tot.pdf).

Source: U.S. Dep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U.S. Dep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 신생기업의 창업과 기존기업의 폐업 빈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의 역동성에서도 의미 있는 창업활동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체 기업 수에서 창업 빈도와 폐업 빈도의 합계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는 “기업교란율(turbulence rate)”이 1990년대 동안 꾸준히 20%를 상회함.
- 창업 빈도와 폐업 빈도는 1990년대 동안 각각 10.7%~11.5%, 9.4%~10.8%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표 3 > 창업률 및 폐업률 추이(1991-2003)

연도	창업률(%)	폐업률(%)	창업순증가율(%)	기업교란율(%)
1991	10.7	10.8	-0.1	21.5
1992	10.8	10.3	0.5	21.1
1993	11.1	9.7	1.4	20.8
1994	11.0	9.7	1.4	20.8
1995	11.3	9.4	1.9	20.7
1996	11.3	9.7	1.6	21.0
1997	11.5	9.4	2.1	20.9
1998	11.2	9.4	1.8	20.6
1999	10.4	9.3	-0.4	19.7
2000	10.2	9.7	-0.9	19.9
2001	10.4	9.8	1.9	20.2
2002	10.4	10.1	0.8	20.5
2003	10.1	9.8	-2.8	19.9

자료: SBA, Small Business Economic Indicators, 1998, 1999, 2004

- 한편, 종업원 규모 20인 이하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연간 2,365 달러의 규제비용(대기업 대비 약 45%)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
- 환경규제에 따른 비용은 대기업에 비해 4.5배를 지출하고 있고, 세

제와 관련하여 대기업 보다 67%를 추가로 지출함.

< 표 4 >

기업규모별 연간 규제비용

단위 : 달러

Type of Regulation	Cost per Employee for Firms with:	
	<20 Employees	500+ Employees
All Federal Regulation	\$7,647	\$5,282
Environmental	3,296	710
Economic	2,127	2,952
Workplace	928	841
Tax Compliance	1,304	780

Source: *The Impact of Federal Regulations on Small Firms*, an Advocacy-funded study by W.Mark Crain, 2005 (www.sba.gov/advo/research/rs264tot.pdf).

2. 기업가정신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

(1) 기업가정신 육성정책 기조

- 미국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육성정책은 가급적 연방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 개발도 최소화하는 것임.
 - 이는 발달된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그 자체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을 강화시키고 존속과 퇴출도 결정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경제자유지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of 1980)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준수 비용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 옴.
 - RFA는 연방정부기관들이 중소기업들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제정하기 전에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되는 대체안이 없는 지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7년 회계연도에 중소기업들이 26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됨.

- 또한 RFA 제610조는 연방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기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보호국에서는 R3 구상 (Regulatory Review and Reform Initiative)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규제 검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연방파산법 제7장의 절차에 따라 파산법원에서 파산결정을 하면 연방파산법 또는 소속 주에서 인정하는 면책자산을 제외한 여타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여타의 채무는 모두 탕감해 줌으로써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을 가능하게 함.
 - 면책자산 범위는 연방파산법과 소속 주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거주주택, 자동차, 가재도구 등을 포함함.
 - 더욱이, 미국에서는 파산 후 재도전하는 경우 매우 도전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음.
- 연방정부와는 달리 주정부와 시정부 등에서는 지역의 발전전략으로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음.
 - 주정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 자원요소들을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산학연 및 금융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창업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를 적극 지원함.
 - 또한 주정부 등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신념을 북돋움으로써 미래의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K-12)의 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을 가르쳐옴.

(2) 기업가정신 육성 교육과정 운영실태

1) 기업가정신 육성 교육과정

①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의 역사는 100년이 넘으며 정규 교과목, 방과후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NCEE, NFTE, JA, Kauffman Foundation 등 다양한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하거나 학교에 제공하고 있음.
- NCEE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1949년 설립)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으로 Mini-Society, Making a Job, EntrePrep을 제공하고 있음.
 - 위의 3가지 프로그램은 원래 Kauffman Foundation의 프로그램이었으나 최근 NCEE에 3년간 350만 달러를 지원하며 운영을 위탁하였음.
 - Mini-Society 프로그램(8-12살)은 30년간 시험·검증된 프로그램으로 43여개 주에서 정규과정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며, 10주 혹은 20주 코스로서 1주에 3회 (45~60분 수업) 진행됨.
 - Making a Job: A Basic Guide to Entrepreneurship Readiness 프로그램(Middle and Junior High)은 정규과정 혹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며 기업경영 보다는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EntrePrep 프로그램(Sophomore or Junior High를 마친 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1주일간 합숙하면서 진행하는 몰입형 기업가정신 특별프로그램으로 1인당 약 800 달러의 비용이 소요됨.
- NFTE (The 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1987년 설립)은 저소득층 및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영교육을 통해 청년실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How to Start and Operate a Small Business 프로그램 (고등학생)은 1학기(semester) 혹은 1년과정으로 정규과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음.
- Fundamentals 프로그램 (중학생)은 20장(chapter)으로 구성된 교재를 토대로 기업가정신과 창업경영에 관한 기초지식을 교육함.
- Entrepreneurship 프로그램 (대학생)은 14장(chapter)으로 구성된 교재를 토대로 한 1학기(term) 과정의 사례연구 중심 프로그램임.
- JA (Junior Achievement; 1919년 설립)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경제, 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및 보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들이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개발, 제공하고 있음.

② 대학 및 대학원 교육

- 1945년 하버드 대학에서 Myles Mace교수가 처음으로 창업과정을 도입한 이래, 1958년 MIT에서 창업과목을 개설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경영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졌음.
- 학부에서의 전공은 Babson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Baylor, Calgary, 그리고 Wichita State 등에서 이루어졌음.
- 석사수준에서의 전공은 1972년 Univ.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시작되었음.

-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과목이 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기업경영 교육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 이에 따라, 창업과정에 관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의 수가 급증하였고, 동시에 이를 가르치기 위한 기금교수직의 수도 늘어났음.
- 카우프만 재단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최소 1과목의 기업가정신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의 개수가 2,337개로 늘어났음.

< 표 5 > 미국의 기업가정신 대학교육 현황

주요 내용	수준
1999년도 4년제 교육기관 중 기업가정신 학과 설치 수	7 개
2006년도 4년제 교육기관 중 기업가정신 학과 설치 수	19 개
제 2기 Kauffman Campus Initiative로 대학에 지원되는 자금규모	275 백만 달러
2006년도 비경영 학도 대상 기업가정신 교과목을 설치한 4년제 교육기관의 수	313 개
2006년도 최소 1과목의 기업가정신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의 개수	2,337 개

자료 : 카우프만 재단

- 미국 대학의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도 관여도 없이 비영리재단, 산업계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해오고 있음.
- 기업가정신 교육에 재정지원하는 주요 비영리재단으로는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The Coleman Foundation, Inc., The Edward Lowe Foundation 등을 들 수 있음.

③ 일반인 교육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중소기업자문단(SCORE), 여성기업센터(WBC), 대학, 비영리재단, 각종 지역개발센터 등에서 제공되고 있음.

- 대표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카우프만재단이 지휘하는 FastTrac®과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교육네트워크(SBTN)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들 수 있음.

2) 뱁슨칼리지(Babson College)의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

① 개요

- 뱁슨칼리지는 1919년에 혁신적 기업가인 Roger W. Babson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기업가정신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독립적인 경영대학으로서 학부생, 대학원생(석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래 비즈니스 환경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 최고의 교육기관임(www.babson.edu).
- 뱁슨칼리지의 MBA 프로그램은 연속 14년간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1위로 평가받았음.
- 뱁슨칼리지는 특히 학부과정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선도자로 인정받고 있음.
- 미국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과목으로 1년차에 모든 학생들이 창업을 통해 기업경영 경험을 갖게 하는 Foundations of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FME)을 들 수 있음.
- 247명의 교수진을 갖춘 뱁슨칼리지는 10개 학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Arthur M. Blank Center for Entrepreneurship 등 9개의 연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표 6 > 맵슨칼리지의 학과 및 연구센터

구분	내용
학과 (10)	Accounting/Law Arts and Humanities Economics Entrepreneurship Finance History and Society Technology, Operations and Information Management Management Marketing Math/Science
연구센터 (9)	Arthur M. Blank Center for Entrepreneurship Babson Faculty Research Fund Center for Information Management Studies Center for Women's Leadership Innovation and Corporate Entrepreneurship Research Center Process Management Research Center Retail Supply Chain Institute W.F. Glavin Center for Global Management Working Knowledge Research Center

② 교육 프로그램

- 학부과정에서는 이학사(Bachelor of Science degree)를 수여하며, 커리큘럼은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을 통해 4년간 핵심 경영 능력, 주요 사업지식, 예술과 과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맵슨칼리지의 추구하고 있는 교육효과는 웅변술, 정량적 분석능력,

기업가정신 및 창의성, 글로벌 및 다문화적 관점,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식, 리더십과 팀워크, 정교하고 통합적인 사고방식 등임.

- 대학원과정(석사)에서는 학생들이 창업이나 기업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적 사고방식을 고양하는 것을 목표로 4가지 종류의 학위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 규모는 약 1,600여명에 달함.

③ 졸업생의 진로

- 2007년도 졸업생(265명, 학부 기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채용(취업)되거나 대학원에 진학함.
 - 2006년에 비해 채용 수요가 23% 증가하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8%가 실제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남.

④ Arthur M. Blank Center for Entrepreneurship

- 뱁슨칼리지의 기업가정신 활동의 중추역할을 하는 연구센터로서 기업가정신 분야의 교육, 연구, 대외교육, 각종 경연대회 등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연구활동으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Successful Transgenerational Entrepreneurship Practices (STEP) project, Diana Project, Babson College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BCERC) 등을 들 수 있음(<표 7> 참조).
- 뱁슨칼리지는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뱁슨방식으로 다른 기관의 교수요원을 교육하기 위하여 Price-Babson Symposium for Entrepreneurship Educators (SEE) 등 다양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음(<표 8> 참조).

< 표 7 > 뱁슨칼리지의 연구활동 프로그램

구분	내용	비고
GEM	1999년에 시작된 세계 최대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40개국 이상에서 2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	London Business School과 공동운영
STEP	전세계 가족기업의 혁신적 경영과정과 사회경제적 가치의 세대간 전수기법을 탐구	
Diana Project	여성기업의 성장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1999년에 런칭되었고, 현재 뱁슨칼리지와 Small Business Research Institute가 편당하고 있으며, 20여개국의 30여 학자들이 연구활동에 참여	연구주도 기관은 뱁슨칼리지, Catalyst, Harvard Business School, Wake Forest Univ.
BCERC	매년 개최하는 국제적인 기업가정신 분야의 연구 컨퍼런스로서 우수 연구논문을 선정하여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에 출간	
The Babson/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Entrepreneurship Consortium	흑인 기업가정신을 대표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발굴, 연구하기 위한 컨소시엄	

< 표 8 > 뱁슨칼리지의 대외교육 심포지움

구분	내용	비고
SEE	전 세계로부터 여러분야의 교수요원들이 참여하며, 매년 SEE 동문의 재회모임으로 REFLECT 개최	매년 봄에 뱁슨칼리지에서 개최
Babson Symposium for Entrepreneurship Educators	전세계의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차례 특별주제로 개최	
Babson-Olin Symposium for Engineering Entrepreneurship Educators (SyE ³)	이공계 분야 교수요원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 뱀스칼리지는 수업내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플랜 경연대회, 보육공간, 아이디어 교류대회, 기업가정신동아리 운영 등의 기회를 제공함(<표 9> 참조).
- 한편, 뱀스칼리지는 기업가정신 이론과 실체를 접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의 성공적 기업가를 Academy of Distinguished Entrepreneurs의 회원으로 입회시키고 성공적 이야기를 학생, 교수와 공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세계 최초로 설립된 ‘기업가정신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에 전시하고 있음.

< 표 9 > 뱀스칼리지의 기업가정신 강화를 위한 특별활동

구분	내용	비고
비즈니스 플랜 경연 대회 개최	<p>예선을 통해 3명의 결승진출자가 매년 창립자의 날에 경합을 벌이고 우승자는 자금과 현물을 상금으로 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uglass Foundation Graduate Business Plan Competition (대학원생) - John H. Muller Jr. Undergraduate Business Plan Competition (학부생) 	미국에서 최초 시작
보육공간 제공	학기 중간에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공간과 교수의 자문을 제공	
아이디어 교류대회 (Rocket Pitch)	학생 혹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3분간 학생, 교수, 사업가, 투자가 등 앞에서 발표하고 네트워킹하는 기회 제공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진행
학생동아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son Chamber of Commerce - Babson Entrepreneurship Club (대학원생) - Babson Entrepreneurial Exchange (학부생) - Babson Entrepreneurial Finance Group - Babson Entrepreneurial Teaching Alliance - Babson Family Enterprising Association - Babson Global Outreach thru Entrepreneurship - Babson Technology Venture Group 	

⑤ 대표적인 뱁슨칼리지 프로그램 : GEM

- 1999년 뱁슨칼리지와 London Business School과 함께 런칭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은 세계 최대, 최장의 국제적인 기업가정신 연구프로그램으로서, 40여개국의 200여명의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참여해 오고 있음.
 - 40여개의 GEM 참가국은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GEM의 런칭 목적은 (1)국가간 창업활동의 유형과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고 (2)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규명하며

(3)기업가정신의 수준을 증대시키는 요인을 밝혀 내고 (4)국가 수준의 창업활동을 제고하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함임.

- 국제적인 협력 연구프로그램인 GEM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기업가정신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음.
- 매년 GEM 연구자들은 세계 각국의 창업활동을 평가하고 다양한 특정주제를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함.
- 1999년 이후 140여개의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국가 수준의 창업 특성, 자금 원천, 지역 개발 등 다양한 주제를 취급함.
- 또한 자금조달, 여성 창업, 고성장 분야의 창업 등 특수한 주제의 보고서도 작성함.
- GEM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경영 관련 언론들에 의하여 기준 자료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학술지와 교과서 등에서도 인용되고 있음.

(3) 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 육성사업 운영실태

1) 재단 개요

- 설립자: Mr. Ewing Marion Kauffman (1916-1993)
- 설립년도 : 1966년
- 재단의 성격 : 비영리 민간재단

○ 설립 비전과 임무

- 사회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소속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하여, 박애정신을 기초로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에 교육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

○ 카우프만 재단의 설립 과정

- Mr. Kauffman (별명, Mr. K)은 Garden City, Missouri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Kansas City에 이주하여 성장하였음.
- 세계 2차대전에 해군으로 복무한 이후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에 자택의 지하실에서 Marion Laboratories Inc. (현재, Sanofi-Aventis그룹의 일부)라는 1인 제약회사를 설립함.
- 40년간 회사를 십억 달러 매출과 3,400여명 직원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89년 Merrell Dow에 매각함.
- 기업가정신과 교육의 중요성을 직접 체득하였던 Mr. Kauffman은 이를 Kansas City를 중심으로 확산하고자 1966년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을 설립하였음.
- 아울러, 1968년 메이저 야구구단 Royals를 인수하여 Kansas City 시민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음.
- 1993년 설립자인 카우프만 타계 시 약 8억 달러의 재산을 모두 카우프만 재단에, 야구구단 Royals는 Kansas City에 기부함.

② 조직 구성 및 운영

- 카우프만 재단은 기업가정신 육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재단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최고의 성과 창출을 지향하고 있음.
- 연구자, 기획자, 경영자 등 전문가 그룹(Education, Innovation, Research & Policy 등 3개 그룹) 45명과 행정분야 종사자(인사, 재무, IT 등) 40명으로 총 85명이 근무함.
 - 특히, Research & Policy 그룹은 20여명에 달하여 외부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질 좋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함.
- 모든 운영시스템을 슈퍼터의 철학을 도입하여 창조적 파괴를 보여줌으로써 상투적인 일은 지양함으로써 부정기적으로 항상 프로그램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례적인 연례보고서 등은 작성하지 않음.
 -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employee라고 부르지 않고 모두 associate로 부름으로써 서로간에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모든 조직은 비용을 지출(expense)하는 것에 주력하고 수익 창출(revenue)은 일부 그룹만 신경을 씀.
 - 상투적인 틀을 벗기 위하여 연례보고서나 정리된 통계자료는 작성하지 않음.
 - 행정직원을 제외한 Associate(특히, 간부직원) 또한 기업가정신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안주하지 않고 도전적인 일을 함으로써 이직률이 높은 편임.

③ 재원 조성 및 운영

- 재단 설립자인 카우프만 타계시 기부한 8억 달러를 투자 등의 자산 운용을 통해 늘려온 결과 2007년 6월말 기준으로 순자산 규모는 24억 달러에 달함.
 - 평균 17% 규모의 자산 수익률을 달성하며, 2007년도 6월말에는 2006년 7월 기준의 순자산에 비해 451백만 달러(17.3%)가 증가함.
- 지출 규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 회기 기준으로 순자산 대비 약 5%인 96백만 달러에 달함.
 - 주된 수입원은 투자 등의 탁월한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일반적인 비영리재단은 종교단체에 기부하거나 암연구 등 의료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카우프만 재단은 설립자의 뜻에 따라 유례없이 독특하게 “청소년 교육지원, 수학/과학 교육강화,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양한 세미나룸과 컨벤션 공간(식당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Kauffman Conference Center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기업가정신에 관한 국제, 국내의 다양한 모임을 지원하고 있음.

④ 사업추진 전략

- 카우프만 재단은 설립자의 취지를 받들어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임무를 갖고 있으며, 미국이 무너지거나 관련 법률이 변하지 않는 한 현재의 사업을 지속할 것임.

- 생계형 창업보다는 MS, Google과 같은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창업에 집중 지원함.
- 카우프만 재단의 사업규모 자체는 절대규모 면에서 크지 아니므로 매칭펀드 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에 관한 관성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펀딩을 지원함으로써 투자금액의 수배효과를 창출함.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에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원함.
- 상무성(DoC)의 요청에 따라 entrepreneurship.gov라는 정부 홈페이지를 카우프만 재단이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SBA)은 주로 레스토랑 등 생계형 창업의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카우프만 재단과의 협력관계는 미미한 수준임.

2) 카우프만 재단의 기업가정신 육성 사업

- 카우프만 재단의 주요 사업은 기업가정신 육성과 교육 사업으로 대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육성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카우프만 재단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을 설립하고, 기업가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함과 아울러 대학 등에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을 도입시킴.

- 현재 동 재단은 모든 연령층에서 기업가정신이 고취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 대학생, 성인, 여성 및 소수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청소년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Walt Disney사와 공동으로 Hot Shot Business라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 사이트 (www.hotshotbusiness.com)를 운영하고 있음.
 - 매년 2,000만명 수준의 학생들이 가상공간에서 창업하고 경영하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6,600만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학생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공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위 Kauffman Campus Initiative를 런칭하고 매칭펀드 방식 등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음.
 -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은 경영대학의 교과목이었음에 반해, Kauffman Campus들은 깜짝 놀랄 정도의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함.

< 표 10 > Kauffman Campus Initiatives

	제1기 프로그램 (8개)	제2기 프로그램 (11개)
Kauffman Camp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rida Int'l Univ. - Howard Univ. -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Univ. of Rochester - Univ. of Texas at El Paso - Wake Forest Univ. - Washington Univ. in St. Lou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izona State Univ. - Georgetown Univ. - Purdue Univ. - Syracuse Univ. - Univ. of Wisconsin-Madison - Univ. of Maryland-Baltimore County - Northeast Ohio College Entrepreneurship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ldwin-Wallace College • Hiram College • Lake Erie College • Oberlin College • The College of Wooster
지원시기	2003년 12월	2006년 12월
재단지원 규모	각 학교당 최고 5백만 달러	총 35백만 달러
특징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토록 추진 - 학교들의 대응자금을 합하여 100백만 달러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학교들의 대응자금을 합하여 200백만 달러 투자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FastTrac®은 1986년 Univ. of Southern California in L.A.에서 시작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1993년 카우프만재단이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며,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300여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만 5,000여명이 이수함(www.fasttrac.org).
- FastTrac의 성공요인은 첫째, 각 지역의 Chambers of Commerce,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Universities and Colleges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하였다는 것과,
- 둘째, 단순히 비즈니스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이 직접 가지고 온 창업 아이디어 혹은 기존 기업의 경영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실현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임(이를 위하여 기업가가 직접 쓴 교재로, 기업가가 직접 가르치고 있음).
- 셋째, 교육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협력기관에서 비학점 과목으로

개설되거나 대학 등에서 학점 과목으로 개설되며, 비학점 과목인 경우 주로 저녁 시간에 주1회 (3시간), 대략 12주간 동안 수업이 진행됨.

< 표 11 > FastTrac®의 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프로그램	비고
Community Development	- FastTrac® NewVenture™ - FastTrac® GrowthVenture™ - FastTrac® TechVenture™ - The Business Mentor™ - FastTrac® Manufacturing™ - Listening to Your Business™	비학점 과정
College/University Program	- Planning and Growing a Business Venture - The Business Mentor™ - Planning the Entrepreneurial Venture (PEV)	학점 과정
Microenterprise Community Development	- First Step FastTrac® - Developing Your Family Child Care Business™	비학점 과정

- 여성 기업가의 기업성장 지원을 위하여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Springboard Enterprise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의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업가의 범주가 광범위하게 다양화되고 있어 효과적으로 기업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인 Eventuring Resource Center (eventuring.kauffman.org)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Kansas City의 대표적인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정보와 수요(needs)를 입력하고 이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자원요소와 연결시켜 주는 KCSOURCELINK(www.kcsourcelink.com)를 개발·운영하

고 있으며 점차 확대시키고 있음.

- 2003년 중소기업청과 Univ. of Missouri-Kansas City와 협력하여 카우프만재단이 런칭하였으며, 해당지역은 Jefferson City, MO로부터 Topeka, KS에 걸친 Kansas City 지역에 국한됨.
- 카우프만 재단은 미국 전역에 걸쳐 기업가정신이 확산되도록 2007년에 기업가정신주간 USA 행사를 Public Forum Institute, New York Times, Inc. magazine 등과 공동으로 조직하고 50개주에 걸쳐 대규모로 추진하였음.
- 카우프만재단은 2004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Enterprise Week와 2007년에 시작된 Entrepreneurship Week USA를 전 세계로 확대한 행사로서 2007년 11월 런던에서 영국의 총리 Gordon Brown과 카우프만재단의 대표 Carl Schramm에 의하여 Global Entrepreneurship Week 2008의 개최계획이 발표됨.

< 표 12 > 2008 세계기업가정신주간의 추진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기간	2008년 11월 17일부터 23일	
행사추진 기관	카우프만 재단 (미국), Make Your Mark (영국)	
행사 참가 예정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등 56개국	한국은 현재 불참
공식 홈페이지	www.unleashingideas.org	
행사의 5대 목적	Inspire, Connect, Inform, Mentor, and Engage	

- 카우프만재단은 231억 달러 (2005년 기준)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엔젤 캐피탈에게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한 비영리재단 Angel Capital Education

Foundation (www.angelcapitaleducation.org)을 2005년 9월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ACEF가 설립되기 전에 카우프만재단이 2004년과 2005년에 엔젤 캐피탈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북미 엔젤 캐피탈 조직인 Angel Capital Association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음.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연례포럼(annual summit), 지역대회(regional meeeting), 세미나와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엔젤 캐피탈을 위한 연구수행과 정보를 제공함.
- 카우프만 재단은 최고 수준의 벤처캐피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4년에 Kauffman Fellows Program (www.kauffmanfellows.org)을 런칭하여 미국 최초의 유일무이한 도제식 훈련프로그램(기간: 2년)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까지 163명의 Kauffman Fellow를 배출하였으며, 80% 이상이 벤처캐피탈에 종사하고 그중 70%가 대표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프로그램 런칭 이후 10년간 Kauffman Fellow들은 417개의 기업에 36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4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됨.
- 카우프만 재단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가 또는 연구자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하여 혁신과 창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료, 기술, 발견적 내용을 가상공간에서 검색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iBridge Network (www.iBridgeNetwork.org)를 구축함.
 - 현재 약 3,000여건의 내용이 탑재되었으며 2007년의 경우, 146개국에서 4만 5,000명의 방문객이 1,700여건의 혁신내용을 검색함.

- 또한, 카우프만 재단은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회형 창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대학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기술사업화 기구로서 개념검증센터(proof-of-concept center)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음.
 - 개념검증센터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초기단계 연구에 씨앗자금을 제공하고 더불어 기술사업화 자문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대표적인 개념검증센터로서 2001년 설립된 UCSD의 The von Liebig Center와 2002년에 설립된 MIT의 The Deshpande Center가 있으며, 추가설치 유망 후보지로 Univ. of Texas at Austin, Johns Hopkins, Univ. of Illinois, Northwestern, Univ. of Wisconsin-Madison 등을 언급하고 있음.
- 한편, 카우프만 재단은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및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기업가정신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였함.
 - 기업가정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 측정에 관한 연구와 기업가정신 연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 등을 지원함.

3. 시사점

(1)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환경 조성

1) 기업가정신육성재단의 설립·운영

- 카우프만 재단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소속사회의 번영에 참여·기여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 육성을 선도하는 대표기관으로 발돋움하였음.
- 금년 11월에는 카우프만재단과 Make Your Mark(영국)가 공동으로 발기하여 세계 56여개의 국가가 참여하는 Global Entrepreneurship Week을 개최할 예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비영리재단이 장학사업, 복지사업, 문화사업, 의료연구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이 필요함.
- 설립방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영국의 Enterprise Insight(Make Your Mark)와 같이 정부·민간 공동주도 방식을 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카우프만 재단과 같이 민간 주도의 공익재단(가칭 한국기업가정신육성재단;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민관 합동 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 개설·운영

- 미국의 경우, 카우프만 재단과 상무성이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민관 공동으로 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www.entrepreneurship.gov)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된 메뉴는 기업가정신 관련 보도자료(press release), 자료실(resources), 행사안내(events)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관한 연구, 교육, 정책, 사례,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학자, 교육자, 학생, 기업 등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민

관 합동의 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 개설이 긴요함.

- 운영주체 : 민간 부문은 대한상의, 전경연 등의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정부 부문은 지식경제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3) 기업가정신 명예의 전당(Hall of Fame) 건립

- 미국의 경우,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표기관인 뱍슨칼리지가 1978년 기업가정신 부문의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87명의 탁월한 성공적 기업가를 입회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경제를 빛낸 기업가 중에서 위함을 무릅쓰고 창의와 혁신적 자세로 기업을 창업·경영하여 한국사회와 인류사회에 공헌한 자를 영구적으로 기림으로써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 입회기준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세계적 기업가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명예의 전당(Korea Entrepreneurship Hall of Fame)'의 가치를 드높임.
-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업계의 기부금과 관련 기업, 정부의 관련 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함.

4) 글로벌 기업가정신 육성 캠프 운영

- 미국의 경제교육전국위원회(www.ncee.net)는 고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1주일간 합숙하는 몰입형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인 EntrePrep(www.entrepreg.org)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서 성적, 추천서 및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고, 선발기준으로 혁신과 창의성/ 리더십/ 동기와 관심/ 특별한 능력 및 경험 등을 활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가정신과 창업경영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인문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몰입형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기업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동 기업가정신 육성 캠프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영어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상장 등을 수여함으로써 여타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도록 함.

5) 기업가정신의 사이버 경진대회 개최

- 미국의 카우프만재단은 Walt Disney사와 공동으로 Hot Shot Business라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사이트(www.hotshotbusiness.com)를 운영하여 매년 2,000만명의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창업하고 경영하는 경험을 하고 있음.
- Hot Shot Business는 경진대회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용 목적으로 제작·설계되었음.

* hot shot는 ‘적극적이며 능수능란한’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음.

- 세계 최대의 인터넷 강국으로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Cyber) 공간에서 비즈니스를 체험할 수 있는 관련 게임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높은 게임 열의를 살리면서 동시에 기업가정신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비즈니스 교육용 게임 개발시 우리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의 성공적

모델이 되는 IT업체가 공동 참여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6) 엔젤투자의 활성화: 기업가정신 교육 측면

- 미국의 경우, 창업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미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엔젤캐피탈의 파이프라인을 공급하기 위하여 265개의 엔젤조직으로 구성된 엔젤캐피탈협회(ACA)를 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 최근에는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지식 확충을 위한 엔젤캐피탈교육재단(ACEF; www.angelcapitaleducation.org)을 설립함.
 - ACEF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연례포럼(annual summit), 지역대회(regional meeting), 세미나와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엔젤 캐피탈을 위한 연구수행과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엔젤투자 통합 네트워크로서 KBAN(Korea Business Angels Network)을 결성하고, 엔젤투자자 육성, 교육, 투자정보 제공,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업가정신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엔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3년에 설립된 KBAN(www.kban.org)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사단법인 한국경영컨설팅협회가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엔젤투자자의 기업가정신 교육, 엔젤투자자에 관한 심층연구, 엔젤투자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엔젤투자자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KBAN 등과 연계하여 엔젤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7)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창업 활성화

- 미국의 경우, 대학에서의 첨단연구를 미국의 혁신역량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기술사업화 기구로서 개념검증센터 (proof-of-concept center)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초기단계 연구에 씨앗자금을 제공하고 더불어 기술사업화 자문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대표적인 개념검증센터로서 2002년에 설립된 MIT의 The Deshpande Center (web.mit.edu/deshpandecenter)와 2001년 설립된 UCSD의 The von Liebig Center (www.vonliebig.ucsd.edu) 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2006년 기술의이전및 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로 전면개정)을 제정하면서 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설치하고 최근 들어 기술금융 강화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으나 초기단계 자금조달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음.
 - 특히 협의의 연구생산성(=연구비 대비 기술료)은 대학 0.3%, 연구소 2.3%에 불과한 수준임.
- 최근 들어 점증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술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 등에 개념검증 지원센터(proof-of-concept center)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긴요함.

- 동 지원센터는 기존에 설치된 TLO 또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혹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임.

8) 창업교육의 상설화

- 미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것은 FastTrac®으로서 미국 50개 주에서 브랜드화된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www.fasttrac.org).
- 1986년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in L.A.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을 1993년 카우프만재단이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며 300여 기관에서 현재까지 265,000여명이 이수하였음.
- 교육생이 가져온 자신의 창업아이디어 혹은 현재 운영중인 기업의 문제점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혹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함.
-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창업교육은 이벤트 성격으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육방식도 비즈니스 강의를 단지 듣는 것에 불과하며, 개설하는 기관마다 상이한 커리큘럼을 갖고 진행하여 교육의 효과가 제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그동안 수행되어온 다양한 창업교육(창업강좌)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표준화된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브랜드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함과 아울러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거점기관(예: 상공회의소 등)을 지정하고, 상설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기업친화형(Business Friendly) 제도 정비

1)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

-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연방파산법 제7장의 파산절차나 제13장의 파산절차를 따르게 되는 데, 제7장의 절차는 파산법원에서 파산결정을 하면 연방파산법 또는 소속 주에서 인정하는 면책 자산을 제외한 여타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여타의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게 되는 새로운 출발(fresh start) 절차임.
 - 연방파산법 제7장의 적용여부는 소득에 대해 2가지 기준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하며, 제7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13장의 '소득있는 자의 파산절차'를 따라야 함.
 - 제13장의 절차는 채무자의 수입전망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상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동 상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상환의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임.
- 연방파산법 제7장에 의한 면책자산 범위(11 U.S.C. § 522(b), 2004년 4월 1일 기준, 매 3년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는 거주주택(18,450 USD), 자동차(2,950 USD), 가구, 의복 등 가재도구(9,850 USD), 보석(1,225 USD), 추가 인정분(975 USD), 장사수단(1,850 USD), 생명보험, 각종 권리 (사회보장혜택, 실업수당) 등에 달함.
 - 면책자산 범위는 연방파산법과 소속 주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동적임.
 - 더욱이, 미국에서는 파산 후 재도전하는 경우 매우 도전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부도 및 파산시, CEO 등 채무자에 대한 압류면제 재산범위가 매우 열악하여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최대 1,600만원) 혹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720만원)에 불과함.

2) 창업 및 기업운영에 따른 규제비용 경감

- 미국의 경우,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of 1980; RFA)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준수 비용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음.
 - RFA는 연방정부기관들이 중소기업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제정하기 전에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고, 동법 제610조는 기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함.
 - 그 결과 2007년 회계연도에 중소기업들이 26억 달러의 규제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됨.
- 최근에는 RFA 제610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보호국에서는 R3구상 (Regulatory Review and Reform Initiative)을 마련하고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주기적인 규제 검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의 RFA 제610조와 같이 규제의 자동검토제도(Automatic Review)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